

‘어서와~ 독립영화는 처음이지?’

광주독립영화관, 12~24일 10편 상영 선착순 30명 무료... 감독과 대화시간

‘동파리’, ‘두 개의 문’, ‘낮은 목소리’ 등 최근 20년동안 제작된 독립영화 중 10편을 선정해 상영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독립영화관(부관장 이세진)은 12~24일까지 ‘어서와~ 독립영화는 처음이지?’를 진행한다. 광주독립영화관 프로그래머인 이세진과 조대영이 독립영화를 낫설고 어렵게 생각하는 관객들을 위해 기획한 이번 시간은 한국독립영화 수작 10편을 선정해 상영하는 기획전이다.

윤가은 감독의 데뷔작인 ‘우리들’은 기획전 첫날인 12월 10일 오후 3시30분 만날 수 있다. ‘우리들’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숙제 같은 ‘가족’의 문제를 풀기 위해 어른들 대신 직접 나선 동네 삼촌사의 용기와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2016년 최고의 다양성 영화로 손꼽히며 베를린 국제영화제를 비롯해 청룡영화상, 백상예술영화상 등 국내외 영화제를 휩쓸었다.

13일에는 ‘두 개의 문’이 상영된다. 김일란, 홍지유 감독의 공동연출작으로 2009년 1월 주거권과 생존권을 요구했던 철거민 5명과 경찰 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용산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어 상영하는 김태용 감독의 ‘거인’ (15일)은 ‘기생충’으로 세계적인 배우가 된 최우식의 초창기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작품으로, 최우식은 생존하기 위해 위선을 배워가는 10대 소년을 연기했다.

아울러 제주 4·3 사건을 따뜻한 위로의 시선으로 담아낸 오벌 감독의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 (16일), 김동원 감독이 1992년부터 12년 동안 비전향 장기수들을 촬영

해 편집한 ‘송환’ (19일) 등도 관객과 만난다.

자신이 내키는 대로 살아오던 강태 ‘상환’이 우연히 가정 폭력에 상처 입은 여고생 ‘연희’를 만나게 되면서 느끼는 감정을 다룬 영화 ‘동파리’는 20일 상영한다. 양익준이 연출하고 연기한 작품으로 각종 국제 영화제에 초청되며 감독상, 작품상 등 11개의 상을 휩쓸었으며, 독립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전국 관객 13만명을 동원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성소수자의 삶을 다룬 ‘불온한 당신’도 20일 상영된다. 칠십 평생을 부정적인 시선 속에서 살아왔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인물을 만날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 제작진이 합작한 ‘한여름의 판타지아’ (22일)는 일본의 작은 도시 고즈에서 만난 남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3-숨결’은 23일 스크린에 오른다. 변 감독의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 시리즈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으로 할머니들의 일상을 빌려 과거로 돌아가 61년 만에 고향을 찾은 이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기획전 마지막 작품은 젊은 여성 노숙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모습을 담은 ‘스티플 플라워’로 24일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감독들이 관객들과 직접 만나 대화(GV)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첫 GV는 13일로 ‘두 개의 문’을 연출한 김일란 감독이 무대에 오르며, 이어 ‘송환’ 감독인 김동원, ‘불온한 당신’ 이영 감독, ‘한여름의 판타지아’ 장건재 감독, ‘스티플 플라워’ 박석영 감독 등도 관객과 만난다.

상영작 전편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상영작 정보와 상영일정은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선착순 30명만 입장 가능하다. 문의 062-222-1895. /전은재 기자 ej621@

우리들
두 개의 문
거인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2
송환
동파리
불온한 당신
한여름의 판타지아
낮은 목소리3-숨결
스티플 플라워



가야금 병창 이영애

드럼 원익준

국악과 재즈의 ‘즉흥적 순간’

오늘 호랑가시나무 글라스플리곤

‘국악과 재즈의 만남’

공연예술전문단체 순수가 2020 시즌 다섯 번째 공연을 선보인다. 10일 오후 7시30분 호랑가시나무 글라스플리곤(광주시 남구 양림동).

광주시 2020문화예술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 제목은 ‘즉흥적 순간’으로 광주시 무형문화재 가야금 병창 이영애와 드럼 원익준, 피아노 김성수가 무대에 오른다.

공연에서는 가야금 산조, 가야금 병창 판소리 ‘심청가’, ‘흥보가’ 등을 들려준다. 또, ‘꽃중의 꽃’, ‘대평가’, ‘천안삼거리’, ‘본조아리랑’ 등 다양한 민요도 선사한다.

한편, 순수는 지난 2013년 창단 이후 양림동 근대역사문화유적에서 ‘양림의 소리를 듣다’ 공연을 펼쳐 양림동 주민들을 비롯해 광주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매 공연마다 장소와 인물에 얽힌 스토리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전은재 기자 ej621@kwangju.co.kr

‘문자 혁명-한국과 독일의 문자 이야기’

국립한글박물관 온라인 특별전

한국과 독일의 인쇄술을 엿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가 열린다. 국립한글박물관은 기획특별전 ‘문자 혁명-한국과 독일의 문자 이야기’ (사진)를 온라인으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17일 오프라인 개막에 앞서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 주요 전시 자료와 전문가의 인터뷰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인쇄술과 서체를 모티브로 한국과 독일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으며 양국 문자 문화는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전시는 온라인 ‘문자 혁명’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독일의 구텐베르크박물관, 라이프치히대학교 서판에서 소장하고 있는 루터의 ‘독일이 성서’ (1536년),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명으로 만든



모험담 ‘토이어당크’ (1517년) 등 자료를 만날 수 있다.

한글박물관에서는 보물로 지정된 ‘간이벽은방언해’ (1578년) 등 보물급 자료들을 소개한다. 한글 금속활자 인쇄본 ‘월인천강지곡’ (1447년 경·국보 제320호), ‘사리영응기’ (1449년)도 새롭게 선보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시 봐도 설레는 한겨울 로맨스 영화

한겨울 로맨스 영화의 고전이 된 영화들이 연말을 앞두고 다시 찾아온다.

‘스케이프 고백’으로 수많은 패러디를 만든 영화 ‘러브 액츄얼리’ (2003)가 오는 16일 재개봉한다. 개봉 이후 10년 만인 2013년 재개봉한 이후 다섯 번째 재개봉이다. 휴 그랜트, 콜린 퍼스, 키이라 나이틀리 등 내로라하는 스타들이 출연해 다양한 사람들이 만드는 다양한 색깔의 사랑 이야기를 펼쳐 보인다. ‘스케이프 고백’을 했던 마크 역의 앤드루 링컨은 당시 조 단역에 머물렀던 배우지만, 2010년 드라마 ‘워킹데드’ 주인공을 꿰차며 유명해졌다.

새하얀 눈밭과 ‘오갱게네스까’ (잘 지내시나요)라는 대사로 기억되는 일본 영화 ‘러브레터’ (1995)도 23일

재개봉한다. 1999년 국내 개봉 이후 다섯 번째 재개봉이다. 첫사랑 이치키를 사고로 떠나보낸 히로코(나카야마 미호)가 그리움을 담아 보낸 편지에 다른 이치키가 보낸 답장이 도착하면서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는 클래식 멜로다.

24일에는 왕자웨이(왕가위) 감독의 대표작 ‘화양연화’ (2000)가 4K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돌아온다. 장만위(정만욱)와 량차오웨이(양조위)가 주연한 영화로 제5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 ‘화양연화’는 칸국제영화제 남우 주연상을 비롯해 세계 영화제 46개 부문에서 수상했으며, BBC가 선정한 ‘21세기 가장 위대한 영화’에 꼽히기도 한 작품이다. /연합뉴스

러브 액츄얼리 16일
러브레터 23일
화양연화 24일

재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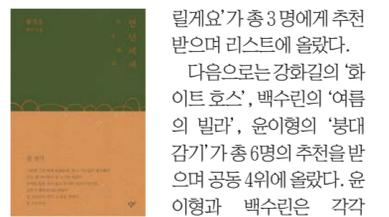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황정은 ‘연년세세’

황정은의 ‘연년세세’ (사진)가 올해 소설가들이 뽑은 가장 뛰어난 소설에 선정됐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핏캐스트 낭만서점이 발표한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에서 황정은의 ‘연년세세’ (14표)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황정은은 지난해 소설 ‘디디의 우산’에 이어 2년 연속 소설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을 쓴 작가로 선정됐다.

2위는 총 9표를 받은 김연수의 ‘일곱 해의 마지막’이다.

3위는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가 총 7표를 받았다. 정세랑 작가는 이외에도 ‘목소리들 드



2019년 젊은작가상을 수상했으며 강화길은 단편 ‘음복’으로 2020 젊은작가상 대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만족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